

March 12 무엇이 복인가?

- 마태복음 5:1-2; 야고보서 1:17

팔복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를 아주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세상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새삼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의 복되다고 하신 방법과 태도로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택할지 결단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간결하고 명확하신 어조에는 세상과의 타협이나 조정의 여지가 조금도 없어 보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차선을 주실 수 없습니다. 최선이 아닌 것은 늘 차선입니다.

복이라 생각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팔복이 그저 이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팔복이 비현실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것 같아 지키지 않겠다는 그들의 판단과 결정이 담긴 말입니다. 복인지 아닌지는 지켜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복인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는 나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세상에 속할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팔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선이자 진정한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이 복이라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심령의 가난, 참된 온유, 깨끗한 마음, 화평 등을 택하고, 성령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약 1:17).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아낌이 없으십니다(롬 8:32).

내게 있어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 ❶ 팔복이 하나님의 최선이며, 진정한 복임을 믿습니까?
- ❷ 나는 어떤 세상에 속해 있으며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